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 여건 실태 점검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주거 여건을 확인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시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추진되며, 근로 조건과 숙소 환경 등 전반적인 고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 장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 체불 여부, 휴게시간 · 일 보장, 숙식비 정수의 적정성, 주거환경과 인권 보호 사항 등이다.

시는 2023년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언어 · 문화에 능통한 언어소통도우미를 배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소통상담실을 운영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긴급의료비와 화연의료공제회비를 지원하는 의료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심리지원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지원 시작지에 해소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센터는 읍면동 외곽 지역이나 시간상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서비스 캠페인'과 '마음건강지킴이 출장상담소'를 운영하며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마음안심서비스 캠페인'은 이동상담 차량을 활용해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함께 정신건강 검진,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기업체의 신청도 늘어나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음건강지킴이 출장상담소'는 정읍시내어울림과 협력해 구성된 '마음건강지킴이 사업단'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최첨단 김치원료 공급단지 본격화

고창군, 절임배추 · 저온저장시설... 김치특화도시 도약 농가소득 · 일자리 창출 기대

고창군 대산면 일원에 김치 원료 생산지의 위상에 걸맞은 최첨단 김치 원료공급단지가 들어선다. 절임배추 생산 및 저온 저장이 가능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지역 농가 조직화와 농업 소득 향상, 인구 소멸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김치특화산업지구'는 국비 등 총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저온저장고 50동과 대규모 절임 가공시설이 만들어진다. 이곳에서 연간 1만톤 규모 일일 최대 40톤의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신선 배추 또한 안정적으로 저장 · 공급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에 선정된 데 이어, 이달에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을 앞두고 있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시 사업비 50억원 추가 확보가 가능해지며, 봄 · 가을 · 겨울 배추(무) 생산 기반 조성과 농가 조직화를 통한 김치 산업 특화 인프라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인근의 발효 · 식품산업육성 지원센터(공음면), 고창식품산업연구원(부안면) 등과 연계해 김치 원료 생산 · 양념 · 레시피 개발까지 아우르는 전주거점 산업 시스템을 완성해갈 계획이다.

고창군은 해당 단지를 중심으로 대산 · 무장 · 공음 지역 농가 조직화를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 절임배추시설 및 저장시설 구축에 따른 50여 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 창출, 원료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 식품산업 융복합 모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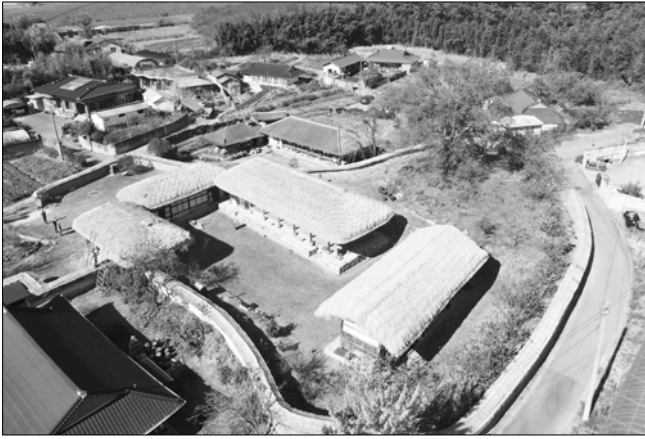
을 선도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고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 국내 김치수출 선도기업인 (주)대상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를 통해 (주)대상은 김치 생산 · 보관 전과정에 대한 기술지원과 품질 균일화, 농가 조직화, 유통 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참여해 김치 저장기술, 절임배추 조직화 방안, 산업 중장기 전략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형 김치산업 육성은 단순한 농가 지원을 넘어, 농생명 기반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지역경제 견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산업 모델"이라며 "단지 조성과 함께 후속 시범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지역 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존 ·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지정 유산으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황윤석 생가 전경

지역 유산 대외 위상 강화

고창군, 황윤석 생가 등 국가유산 지정 · 승격 추진

고창군이 지역 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존 ·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지정 유산으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주요 대상은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고창 하교리 왕버들숲' (천연기념물), '이재난고' (보물), '고창 선운사 영산전' (보물),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사적) 등이 있으며, '고창 무장읍성 출토 비석전원' (보물) 등은 신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도지정 유산으로는 '고창 도암서원' (문화유산), '고창 남당회맹지' (기념물), '고창농악 상쇠' (무형유산) 등이 지정 · 승격을 준비 및 심의중에 있다.

하교리 왕버들숲은 성송면 하교리 삼태마을 앞 하천 둑을 따라 조성된 마을숲으로, 왕버들을 비롯한 다양한 수종이 생육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비

림 및 수해방지림,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황윤석 생가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재 황윤석이 태어나고 생활하던 곳이며 '이재난고'가 보관되어 있던 역사적인 공간이며, 이재난고는 조선 후기 생활을 현재에 다시 보여주는 '타임캡슐'이라 불릴 만큼 현존하는 조선시대 일기류 중 최대, 최대의 방대한 저장물이자 사료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적 가치와 과학기술사적 측면의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고창군은 현재 고창읍성 등 국가지정 유산 30건과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 등 국가등록문화유산 2건, 도지정 유산 69건, 향토유산 11건 등 총 112건의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에서 전주, 남원, 익산과 더불어 국가유산 보유 상위 지자체에 해당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가예산 확보 기재부 심의 대응 철저히 해야”

권익현 부안군수, 주요 간부회의서... 여름철 폭염 대응 사전 점검 등도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심의 대응 철저 등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9일 열린 주요 간부 회의에서 "2026년 국가예산안이 각 부처 심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 단계로 본격 진행됐다"며 "주요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대응 논리, 설명자료, 건의 방식 등을 재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사업은 연차 조정이나 예산 삭감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 부서에서는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



을 통해 논리를 보완하고 연차별 집행 실적, 지방비 매칭 계획,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대응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다.

특히 "정부안 반영 여부가 2026년 예산 확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전 부서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 달라"고 언급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활동시간 조정, 건강관리 교육, 휴식시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여름철 코로나 재확산 우려... 정읍시, 개인위생 철저 당부

정읍시 보건소가 여름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며 시민들에게 손 씻기,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소는 "최근 중국, 홍콩, 태국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 국내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고려 일상 속에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 추세로, 특히 환기 부족과 밀접 접촉이 잦은 여름철에는 바이러스 전파 환경이 쉽게 조성된다.

이에 따라 시는 고위험군의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 속 방역수칙 실천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수칙으로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하기 △가침

시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 가리기 △의료기관 및 감염 취약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람이 많은 밀폐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는 외출과 대면 접촉을 자제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회복 후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보건소,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

부안군보건소가 여름철을 맞아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5~10월 사이 주로 발생, 해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거나 바닷물에 피부 상처가 접촉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감염 후 1~2일 내로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증상이 시작된 지 24시간 이내 하지에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출혈성 수포가 형성되고 점차 괴사조직으로 변해가는 경과를 보인다.

특히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면역저하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감염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 반드시 익혀 먹기, 어패류 5도 이하 저온 보관, 조리 시 장갑 착용 및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 사용한 도마와 칼 소독 후 사용,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 접촉 피하기, 노출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기 등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보건소는 4월~10월까지 매월 2~4회 해안지역의 해수 · 수산물 수 · 갯벌 · 어패류를 채취해 비브리오팀 검사를 정기적으로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